

국립돌리소

군산시, 농산물 최저가격제 보장

군산시가 가을무·배추에 대해 농산물 최저가격제 보장으로 농가소득 안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2016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을 내달 30일까지 농가소득지원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품목별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대상품목은 가을무와 가을배추 2개 품목이다.

지원대상은 군산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소재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해 군산원협 등을 통해 계통 출하하는 농업인으로, 지원범위는 1,000㎡~10,000㎡이다. 사업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원협·농협 등과 체결한 출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소방서, 특별소방안전대책 추진

군산소방서는 추석을 앞두고 '특별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에 발생한 사고는 화재 4건, 구조 99건, 구급 288건으로 1일 평균 6회 이상 소방차가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오는 31일까지 관내 시설 등 주요취약대상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9월 14일까지 화재취약대상 및 전선시공에 대한 특별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소방출동로 확보 등을 통해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 화재 예방 감시체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농협, 2천만원 장학금 전달

군산농협(조합장 강춘문)은 지난 23일 농협 대회의실에서 임직원 및 조합원, 자녀 등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에게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

농협 측은 이날 대학생 자녀 20명에게 각 1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격려했다.

군산농협은 지난 2011년부터 조합원 복지향상과 우수인재육성 및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장학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올해까지 학업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 110명에게 1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강춘문 조합장은 "장학사업을 통한 우수 인재육성 및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간여행축제 서포터즈 모집

군산시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개최되는 '2016 군산시간여행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대학생 서포터즈를 공개모집한다.

서포터즈 지원은 군산지역 대학생 및 군산에 거주하는 대학생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9월 2일까지 전자우편(sain088@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포터즈로 선발되면 9월 5일부터 축제 종료시까지 '2016 군산시간여행축제'에 대한 정보와 행사일정 등을 SNS에 홍보하거나 소속 대학교에 관심 유도, 축제 직접 참여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하게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이·통장하마음체육대회

익산시 이·통장연합회는 25일 익산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이·통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익산시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 내 이·통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화합과 친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읍면동별 각색 있는 입장식을 시작으로 개회식, 체육행사, 장기자랑이 이어졌다. 개회식에서 이·통장연합회장은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가 상호간의 화합을 다지고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이·통장들의 진정한 화합의 잔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2015년, 전북에서는 4번째로 익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센터)가 들어섰다.

익산 육아종합 지원센터, 다락방 프로그램 · 야간시간제 보육 시행

“우리아이 안심하고 맡기세요”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가 된지 오래다.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끝을 모르는 물가상승, 점점 높아지는 육아비용 등이 저출산을 부추기는 큰 걸림돌이다.

육아에만 그치지 않는다. 자녀 1명을 대학까지 보내기 위해선 3억원이 필요하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출산 후 처음 직면하는 육아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과 사업들도 다양하다. 그 중 하나가 육아종합지원센터다. 2015년, 전북에서는 4번째로 익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센터)가 들어섰다.

육아센터는 보육과 양육에 대한 정보제공과 지원은 물론 보육교직원과 학부모들의 지원과 상담도 이뤄진다. 갖춰놓은 지난 익산육아센터가 학부모들의 입소문이 퍼지면서 든든한 아이행복센터로 자리매김 중이다.

-다양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다락방 프로그램 인기

익산육아센터에서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놀이체험관 속 다락방 프로그램이 지역 어린이집과 영유아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 놀이체험관 평균이용자가 월 90여명에서 다락방 프로그램 운영 후 지난 7월에만 2,000여명이 이용하는 등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놀이체험관 속 프로그램인 다락방 프로그램은 부직포가방, 그리기 종선 등 다양한 주제의 만들기 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 주 4회 하루에 1차량만 선착순으로 운영되며 육아센터 놀이체험관 이용료만으로 다락방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다.

-야간시간제보육 전국 최초 시행

익산육아센터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야간시간제 보육도 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맞벌이부부를 위한 야간시간제 보육이 처음 시작됐다. 야간이 많은 맞벌이 부부에게 시에서 직접 전문운영하는 보육시설이라는 믿음과 저렴한 비용에 큰 인기를 끌었다. 주·야간 2개반씩 운영되는

야간시간제보육 이용자 수가 불과 4개월만에 700명을 넘어섰다.

이후 익산육아센터는 야간시간제 보육이 큰 인기를 끌자 맞벌이 가정의 애환을 고려한 재테크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을 확대했으며, 야간, 휴일 시간제보육 시범사업까지 선정되어 야간 2개반과 휴일 1개반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휴일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평일 야간에는 22시까지 운영한다.

이용요금은 예를 들어 맞벌이부부의 경우 시간당 4천원이지만 정부에서 3천원 지원을 받을 수 있어 1천원의 보육료만 내면 된다.

익산육아센터 관계자는 “육아가 즐겁고 아이가 행복한 여성가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락방프로그램은 물론 야간시간제보육 등 수요자 입장의 정책들을 만들고 추진하고 있다”며 익산육아센터가 단순한 놀이체험이나 장난감 대여 공간이 아닌 육아에 가장 가까운 다가가 수 있는 쉼터공간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익산시의회, 시 현안문제 해결 위한 지원 요청

익산시의회 소병훈 의정의 7명의 의원들은 하나 되어 익산시의 최대 당면업무 중의 하나인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 및 한국폴리텍 V대학 익산캠퍼스 증·개축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지난 24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면담하여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중앙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국회의장과의 면담은 익산시 제3선거구 도의원인 전라북도의회 황현 의정이 함께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 황호열 의원이 면담을 주선하여 다수의 시의원들이 함께 했다.

그동안 익산시에서는 2010년부터 시작된 익산제3일반산업단지에서 연무IC를 잇는 진입도로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수백여명의 자체예산 부족으로 올 하반기부터 공사가 중단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폴리텍 V대학 익산캠퍼스

대학분관 및 기숙사 증·개축 사업을 위한 시의 공역재산사용 승인요구가 있었으나, 시의회에서는 익산시의 일방적 재정적손실을 요구하는 사용승인 요구에 대하여 국가차원의 재정적 보상 등을 이유로 두 번이나 부결한 바 있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당면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시의원들이 하나 되어 국비 확보 등을 위해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추진하게 됐다.

소병훈 의원은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시 현안문제를 시의원들이 하나 되어, 중앙정치권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만큼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앞으로도 살기 좋은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는 물론 시의원들이 더욱 협력하여 당면한 현안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원광대, 2016학년도 1학기 교직원 정년식 개최

원광대학교는 오는 8월 31일 자로 정년을 맞이하는 교직원들에 대한 정년식을 김도중 총장과 교직원들을 비롯해 퇴임자 가족, 재학생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지난 24일 교내 송산기념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에 정년을 맞은 교직원들은 김진국(국어교육과), 김환용(전자공학), 김영준(음양과), 이광진(미술과), 정동훈(미술과), 우종양(음악과), 김태웅(군사학과) 교수와 직원 김광영(정보통신원 운영관리과), 정철주(관리처 안전관리과) 선생 등 모두 9명이다.

정년자들은 훈포장 및 부총리 표창 대상자로 추천됐으며, 원광대는 학교발전과 후진양성을 위해 노력한 정년자들의 공적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정년식을 마련했다.

김도중 총장은 송공사를 통해 '재직

기간 학교 발전과 학문적 풍토를 이끌어 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정년하시는 분들의 노력 덕분에 현재의 원광대가 대형 국립대학에 선정되는 등 격이 다른 대학으로 내실을 다지게 됐다'며 '퇴임 후에도 항상 건강을 유지하시고 대학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가정주심으로써 영원한 원광 가족으로 남아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년자를 대표해 답사에 나선 우종양 교수는 "원광대에서 후학을 양성하게 된 것을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무엇에 의해 정년살이 살아왔지만,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초심으로 돌아간 영원한 원광인으로서 원광대가 학생들의 공적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정년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익산농기센터, 농작물 가뭄 피해 예방 현장지도

익산시농업기술센터는 연일 폭염과 강수량 부족으로 농작물이 말라가는 현상 발생되고 있어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가뭄대피 현장지도에 나섰다.

농촌진흥청 농업기상분석에 따르면 익산시의 경우 8월 평균최고 33.3℃로 전년 30.3℃보다 3℃ 높았으며, 8월 강수량은 5mm로 전년 28.5mm의 17% 수준에 그쳤다.

벼는 현재까지 가뭄에 의한 영향은 없고 생육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콩·고구마·참깨·고추 등 농작물의 경우 시들어가는 증상 등 가뭄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며 농가 지도에 나섰다.

농업기술센터는 물대기가 가능한 지역은 밭에 물을 대도록 지도하고 물대기가 어려운 곳은 짚 산베, 미숙리 등으로 피복하여 수분 증발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했다. 또한 이동식 스프링클러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설치하여 물을 주게 했다.

과수원은 고온 및 가뭄 영향으로 과

수 생육부진과 햇빛 데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잎따기와 반시림을 설치 시기를 늦추도록 했다. 뿌리 부분의 지면에 퇴비·짚·풀·비닐 등을 깔아 수분 증발을 억제하고 관수시설을 이용한 물주기, 불량과일 솎아내기로 양수분 소모 및 흡수 경쟁을 방지해 과수 피해를 최소화 했다.

가뭄으로 김장배추 아저씨가 늦어질 경우 포트 간격을 넓혀 주고 물주기를 제한하여 생육 조절 하고 생육이 불량한 묘는 요소(0.2%)액을 2~3회 잎에 뿌려 묘 노화를 방지하는 한편 진딧물, 배추흰나비, 배추흰나비 등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해주기를 당부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기상청 중기 기상예보에도 당분간 평년 수준을 초과하는 강수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밭 가뭄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가뭄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물 관리 영농기술지도를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 어민들, 전어조업 타 지역 선박과 마찰 우려

새민금 인근 해역에 서식지 형성해 밀려오고 있어... 조업 이뤄지면 큰 피해

재첩을 맞은 전어 조업을 놓고 타 지역 선박과 군산어민들 간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25일 군산시와 군산수협 등에 따르면 이상기온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남해안의 전어 어획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새민금 인근 해역에 전어 떼의 서식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타 지역 선박들이 군산 새민금 해역으로 밀려들고 있다.

이들 타 지역 어선들은 여수산적 근해선망어선(16톤급)들로 최근 6척이 선단을 이뤄 고군산군도, 아미도 등에서 전어조업을 했으며, 조업 후 운반선을 통해 가력한 신치항으로 운반할 여력을 이용해 전량 부산 등지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오는 9월 전어 성어기를 맞아 전남과 경남지역 근해선망 20여척이 군산해역에서 조업을 위해 출항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산 지역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여수산적을 비롯한 타 지역 선단이 군산 새민금 해역에서 조업이 이뤄질 경우 군산지역 선망어선들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

군산지역 선망어선은 대부분 10톤 이하의 소형어선으로 여수산적 근해선망에 비해 어획기술은 물론 어획량에서도 1/10수준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근해선망은 연안에서 5.5km 해역 내 조업인 금지돼 있으나 이들

선단은 해경의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선박위치표시기(VHF-DSC) 등을 고의로 꺼놓는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조업구역 위반을 일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민들은 "가뜩이나 어획량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여수산적 근해어선들이 연안으로 들어와 재첩을 맞은 전어를 마구잡이로 조업하는 것은 조업구역 위반행위로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근해선망은 연안에서 5.5km 해역 내에서 조업 행위가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시 수산법 64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어업정지 20일에 처하게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 사업 제동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페이퍼코리아는 공장이전에 따른 개발이익금 1652억원이 발생했으나 군산시로 돌아오는 이익금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는 동군산지역 개발과 페이퍼코리아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2011년 2월 조촌동의 현 부지(59만6163㎡)에서 비응동동의 이전부지(9만5868㎡)로 옮기기로 하고 사업약정을 체결했다.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는 당초 공장 이전추진위원회를 통해 도시계획을 변경, 공장을 이전하려 했지만 개발이

익에 대한 특혜사비를 막기 위해 개발이익(지가차익 및 수익사업)으로 공장이전 비용을 충당하고 개발이익이 이전비용을 초과해 남는 경우 이익금의 51%를 군산시에 환수토록 약정했다.

하지만 페이퍼코리아는 개발이익금으로 공장이전 비용을 충당하더라도 부족해 385억원의 재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으로 사실상 군산시는 초과이익금 환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사업약정에서는 공장 이전에 따른 재원조달계획으로 준공업지역의 공장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발생한 지가차익 715억원, 공동주택 분

양에 따른 수익금 937억원 등 1652억원의 사업수익금과 페이퍼코리아 자체 비용 385억원 등 2037억원으로 돼 있다. 이럴 경우 개발이익금은 고스란히 공장이전 비용으로 소모돼 개발이익금은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군산시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군산시가 페이퍼코리아와 사업약정을 통해 개발이익금의 51%를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정작 개발이익금은 이전비용으로 다 들어가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한 것"이라며 "이는 시의회와 시민들을 속인 것으로 특위를 구성해 제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